

자영업자 대출 1034조 '사상 최대'

저소득 자영업 2금융 연체율 1분기 1%p 뛰어

2금융 자영업자 대출 1분기에만 3조1천억 늘어

수년간 코로나19 충격과 경기 부진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0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이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도 한계에 부딪히며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대규모 부실' 사태가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 1분기 1034조 육박 '사상최고'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

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3분기 1014조200억원, 4분기 1019조9000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었다. 3개월 사이 13조9000억원 더 늘었다.

연체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졌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작년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 높다. 연체율 상승 폭도 지난해 4분기(0.12%포인트)나 3분기(0.06%포인트)와 비교해 크게 뛰었다.

1.00%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다. 증가율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1분기에만 3조1000억 늘었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6%로 0.4%포인트 올랐다. 이 계층의 연체율 1.6%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3분기(1.7%)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8%)도 3개월 새 0.5%포

인트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분기(1.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9%)도 2019년 3분기(0.9%) 이후 3년 6개월 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22년 4분기 119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3조원으로 3조1000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713조9000억원→723조6000억원)와 중소득 자영업자(186조5000원→187조2000억원) 대출도 각각 9조7000억원, 1조2000억원 더 늘었다. 저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은 각 역대 최대 규모다.

/뉴시스

호남권 2분기 경기 '소폭 악화'

제조업·서비스업생산·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 ↓

올해 2분기 호남권 경기는 1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및 목포본부가 지역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1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이 감소했으나 자동차와 조선은 소폭 증가했다. 철강과 반도체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석유정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동률도 하락하면서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수출 부진, 정기검사 실시 등으로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소폭 감소했으며 업종별로 숙박·음식업은 증가했으나 도소매업은 전분기 수준 유지, 부동산업·운수업은 소폭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2분기 중 설비 투자는 1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

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은 탄소배출 저감 투자에도 불구하고 업황 부진이 지속되며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반도체는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2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보험 수준을 나타냈으나 재화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등으로 2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기둔화 우려,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등에 따라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중 건설투자는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부문은 공사단가 상승, 미분양주택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었던 현장들이 일부 착공됨에 따라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권형안 기자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검토...내달중 시행 예정

정부가 늦어도 7월 중순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는다.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경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DSR 규제완화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내달 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 3.4% 늘때 빵 물가 14.3% 상승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빵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밀가루. /뉴시스

전남, 소상공인·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30일까지 접수

방문·우편 접수...신규·리뉴얼 18개소 선정

전남도는 지역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10년 이상 운영한 제조업체 중 소상공인 및 상점가·변형회 등이다.

사업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평가와 현장조사, 대

면 발표평가 등을 거쳐 신규 제작 8개소, 리뉴얼 10개소 등 총 18개소를 7월 초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제작 8개소엔 신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수립을, 리뉴얼 10개소는 환경 변화에 맞게 특성이 반영된 기존 브랜드 리뉴얼·디자인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및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상가, 도 지정명인 등을 대상으로 모두 94개소를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받은 순천의 한



식품업체 대표는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한 제품디자인 변경 후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권형안 기자

기아, 스타벅스와 'EV9 굿즈' 출시

친환경 소재 활용 보스턴백·파우치 등 5가지



기아는 대형 SUV 전기 차인 'EV9' 출시를 맞아 글로벌 최대 커피 전문 브랜드 스타벅스와 협업해 EV9 방향성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 콜라보 굿즈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콜라보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진행된 것"이라며 "굿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아의 의지가 담긴 EV9의 방향성에 맞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여정을 위한 제품'으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콜라보 굿즈는 보스턴백, 파우치, 리유저블 컵, 컵 슬리브, EV9 모형 팔대 등 총 5가지로 구성된다.

기아와 스타벅스는 보스턴백과 파우치에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rPET) 원단을 사용하고 컵 슬리브에 실제 EV9의 내장재인 비건 가죽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하는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EV9의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래픽 디자인 포인트로 형상화하고, EV9과 스타벅스의 로고를 활용해 양사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했다. 특히 아이보리 실버, 아이스버그 그린, 오션블루 등 EV9의 외장 컬러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의 그린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해 두 브랜드 간의 콜라보를 디자인에 녹여냈다.

농협광주공판장, 농산물출하가격 보장 협약

경산양농협과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확대 맞춘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은 최근 광주공판장에서 경남 경산 양농협(조합장 이상관)과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출하가격 보장 계약 체결을 위한 출하가격 보장 계약 체결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출하가격보장제는 사전 협약을 바탕으로 품목과 물량·규격·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 출하 기간 안에 기준가격 이하로 낙찰되면

총액 한도 안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출하가격보장제 협약은 급격한 가격 등락에도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지지와 지속적 출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의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출하가격보장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권형안 기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스마트특성화사업 선정

전남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선정으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의료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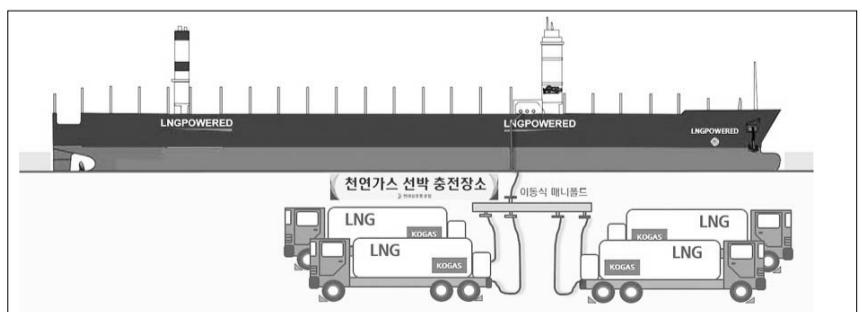
이 사업은 전남·광주·충남이

공동 기획했다. 3년간 국비 95억원을 포함한 153억원이 투입되며 전남은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 의학연구센터와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의약·의료소재 공정개발 장비 확충과 기술지도·공정개발·시제품 제작 지원에 나선다.

/권형안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LNG추진선 동시 충전 '실증특례사업' 개시

산업부 승인 획득...8월부터 건조 중 선박 9척 대상 시행



현대삼호중공업의 LNG추진선 연료 충전시험 개념도.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특례사업을 개시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

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한 결과, 지난 9월 5일자로 최종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시행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LNG추진

/영암김영두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물류 디지털전환 협약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중소조선연구원, 케이씨넷, 아르고마린토탈과 선박·항만·물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YGPA는 선박·항만·물류 신기술 개발·상용화와 더불어 관련 신사업 발굴,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전환이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운영방식을 혁신하는 것으로, 선박·항만·물류 산업의 스마트항만 조성 및 디지털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의미한다.

박성현 사장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시작으로 선박·항만·물류 산업 또한 디지털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중소조선연구원, 케이씨넷, 아르고마린토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수광양항만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순주의 기자